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세조, 계룡산을 방문하다

2017. 08. 21

오은제, 윤진희, 신호섭, 엄태준

지도교사 : 이진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조, 계룡산을 방문하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509 오은제 1510 윤진희
2509 신호섭 2510 엄태준

1. 탐사의 필요성

가. 테마별 코스 지도 제작 목적 : 테마 코스 지도의 부재

계룡산 국립공원에는 계룡 8경을 위시한 빼어난 자연 경관, 신라의 화엄 10대 사찰 중 하나인 갑사를 대표로 한 불교 문화, 조선과 대한 제국의 역사를 품은 신원사와 동학사 등 수많은 명소와 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계룡산 안내 책자 등을 살펴보았을 때, 계룡산의 여러 가지 관광 명소와 여러 추천 코스들이 소개되어 있으나 계룡산이 매우 넓고 다양한 코스들이 존재하여 본인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하기 힘들었다. 또한, 자연 경관, 동식물, 불교문화 등 개개인의 관심사가 있을 텐데 사람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계룡산을 탐방할 수 있는 코스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테마별 관광 코스를 제작하여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역사적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고려한 테마 코스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숙모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1) 관광객들의 눈에 많이 띄지 않는 숙모전

계룡산 탐방안내소에서 표지판을 따라 동학사로 향하다 보면, 동학사 근처에 이르러 숙모전을 발견할 수 있다. 계룡산 내의 다른 장소들은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반면에 숙모전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 계룡산 탐방 시에 구할 수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도에서도 숙모전의 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은 잘 나와있지 않으며, 숙모전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 역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숙모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위치해 있어 안내판을 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보기 힘든 위치에 있다.

2)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숙모전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숙모전을 보고 숙모전이 다른 곳들에 비해 관광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숙모전은 조선시대 세종에서 세조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역사와 저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다. 숙모전에 얽힌 세조의 이야기

1) 매월당 김시습, 숙모전의 시작

세조 3년(1457), 생육신 중 한명인 김시습은 조상치, 이충, 조려 등과 함께 삼은각 옆에 단을 쌓아 초혼각을 건설, 사육신의 초혼제를 지내고 단종의 제단을 증설한다. 세조 4년(1458), 세조는 계룡산 근처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초혼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초혼각을 둘러 보고는 감동하여 단종과 정순왕후, 안평대군, 금성대군, 김종서, 사육신 등 세조의 계유정난 중 억울하게 희생당한 280명의 이름을 8폭의 비단에 손수 적어 초혼제를 지내게 한 뒤, 초혼각을 짓게 하고 '동학사'라고 사액한 후 인신과 토지 등을 하사하여 스님과 유생이 함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계룡산 입구에는 세조가 초혼각에 참배하고 돌아가던 중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울바위'가 있으며, 근처에는 세조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발걸음을 자작거렸다(힘없이 찬찬히 걷다)고 전해지는 자작바위가 있었으나 주변 공사 중에 바위를 제거하여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라. 탐구의 목적

이에 우리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초혼각과 울바위, 자작바위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숙모전과 세조를 테마로 한 계룡산 관광 코스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세조가 계룡산에 다녀간 경로를 유추하여, 그 경로를 따라 걸어보며 기존의 관광 홍보물과 표지판이 서 있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 보고, 가족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2. 탐사 과정

가. 자료 조사

1) 계룡산 국립공원 홍보자료

- 계룡산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 검색
- 계룡산 국립공원 리플렛, 책자 분석
-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 검색
-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홈페이지 등 기타 인터넷 자료

2)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의 분석을 통한 세조의 이해
- 숙종실록 등 세조 이후의 조선왕조실록 기록 분석

나. 전문가 인터뷰

1) 계룡산 탐방 안내소 Park Ranger

계룡산 탐방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숙모전의 위치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구하고, 그 외의 계룡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조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였다.

2) 사단법인 숙모회 관계자

숙모전 내에 위치한 사단법인 숙모회 관계자분께 인터넷과 여러 서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숙모전과 관련된 정보를 여쭙어 보았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숙모전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로 음력 3월 15일과 단종이 승하한 음력 10월 24일에 제사가 진행될 때에만 그 후손들과 숙모회 관계자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계룡산 속 세조의 흔적 찾기

세조가 계룡산 방문 시 다녀갔던 경로 중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들을 방문하였다. 탐사 시 방문한 곳은 숙모전, 홍살문, 자작바위 터, 울바위로 총 4곳이다.

1) 숙모전

현재 숙모전은 공사 중으로 관리자분들께 동의를 구해 들어가 보았다. 숙모전은 가운데 숙모전 정전과 그 양 옆에 동묘, 서묘가 각각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사단법인 숙모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방문하여 숙모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구하였다.



[그림 1] 숙모전 전경

2) 홍살문

숙모전에서 계룡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문으로, 보다시피 위에 붉은 색 화살 모양의 나무가 꽂혀 있다. 홍살문은 성리학의 기본 이념을 대중화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불교적 시설물인 동학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절 앞에 홍살문이 있는 경우는 동학사와 용주사 두 곳 뿐이다.



[그림 2] 동학사 홍살문

3) 자작바위 터

세조가 이동하지 못하고 자작거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바위는 남아있지 않고 그 터만 남아있다. 우리는 탐사를 진행하며 바위가 있었던 위치를 지역주민 분들과 계룡산 주변 음식점 및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쭙어 보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다.

4) 울바위

세조가 계유정난 때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어 붙여진 이름으로 계룡산 국립공원 표지판과 ‘계룡산 두부마을’이라는 음식점 사이에 위치해 있다. 바위 앞에는 바위에 올라가 볼수 있게끔 만들어진 계단이 있으며, 직접 올라가 보아 그 당시 세조의 슬픔을 추측해 보았다.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는 표지판 하나 없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림 3] 계룡산 울바위

라. 체크포인트 선정 및 리플렛 제작

앞서 조사한 자료들과 계룡산 탐방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체크포인트를 선정하고, 선정한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포함한 리플렛을 제작한다.

3. 탐사 결과

가. 자료 조사

1) 계룡산 국립공원 홍보자료

-계룡산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계룡산 탐방코스를 분석하여 탐방코스 제작에 고려하여야 할 점과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주제 및 테마 설정에 대해 학습하였다.

-계룡산 국립공원 리플렛, 책자를 통해 정해진 주제에 따른 코스 설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명소와 역사적인 위치를 알아내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과 각종 홍보물을 제공받아 그것을 분석하여 잘 알려지지 않아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동학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동계사, 삼은각, 숙모전 등 동학사에 있는 많은 건물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었다.

-기타 인터넷 자료들을 수집하며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공식 홈페이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기반하여 울바위와 자작바위 등의 위치를 알고 그곳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2)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을 읽어 보고 세조실록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세조의 성격과 속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으며,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왕이 된 후의 세조의 행적을 통해 세조와 그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세조실록 뿐만 아니라 숙종실록 등 세조 이후의 왕들의 실록을 분석하며 세조 이후의 생육신, 사육신 등 단종과 그와 연관된 인물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던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세조와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알 수 있었다.

나. 전문가 인터뷰

1) 계룡산 탐방안내소 Park Ranger

계룡산 탐방안내소 직원분께 우리의 주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계룡산 국립공원의 역사와 문화’,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도’ 등의 리플렛을 받았다. 특히 탐방안내소 직원분께서 우리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룡산에 도착하기 전에 세워 두었던 계획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계룡산의 명소 중 숙모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알려 주시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고, 우리는 테마코스 중에서도 세조에 대한 코스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계룡산 탐방안내소에서 받은 ‘계룡산 국립공원 종합매뉴얼’은 풍부한 양의 자료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설화, 지명의 유래 등이 잘 나와 있어 유명하지 않은 장소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사단법인 숙모회 관계자

숙모전은 보수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없었으나, 숙모전을 관리하는 숙모회 분의 협조를 얻어 숙모전 내부와 삼은각, 동계사까지 출입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자분의 말씀과 문헌을 통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다. 계룡산 속 세조의 흔적 찾기

계룡산 동학사 부근에 세조의 흔적이 전해지는 곳은 숙모전, 울바위, 자락바위이다.

『숙모전에 얹힌 세조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455년(단종 3년),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된다 (세조반정). 이후 단종의 충신들이 죽음을 당하고, 생육신 중 한명인 김시습은 이들의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숙모전에서 초혼제를 지냈다. 이후 세조가 동학사에 방문해 그 내력을 듣고 감동하여 비단에 억울하게 죽어간 신하들의 이름을 적고, 단종과 그들을 기릴 수 있도록 ‘초혼각’을 짓도록 했다.

『홍살문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홍살문은 ‘붉은 화살로 된 문’으로 충신, 효자, 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해 임금이 집, 마을 앞, 능, 원, 묘, 궁전, 관아 등에 세운 문으로,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성리학의 근본이념인 충과 효를 대충화시키기 위해 세운 것이다. 특히 동학사의 홍살문은 충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숙모전의 사육신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신라시대의 충신을 모신 동계사와 고려 말기의 충신을 모신 삼은각이 있기 때문이다.

『동학사의 세조와 관련된 설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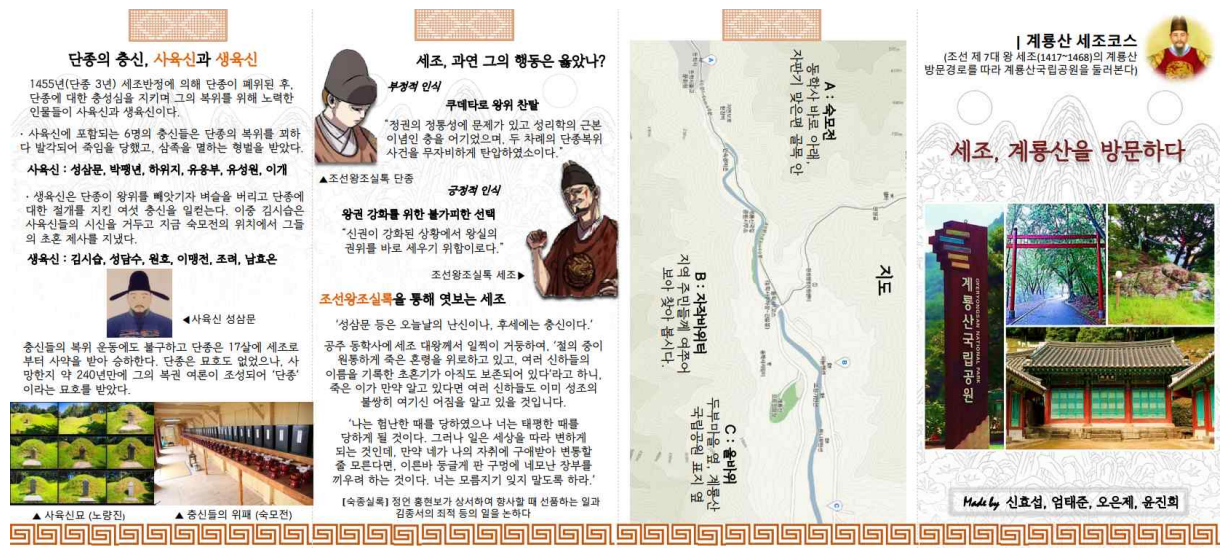
세조가 초혼각에서 돌아갈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었던 바위가 ‘울바위’라고 전해지고, 세조가 초혼각을 돌아보며 자작거렸던 바위가 ‘자작바위’라고 전해진다.

라. 체크포인트 선정 및 리플렛 제작

‘세조, 계룡산을 방문하다’라는 주제로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계룡산 속 세조의 흔적이 전해지는 숙모전, 울바위, 자작바위를 체크포인트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육신과 단종을 모시는 숙모전뿐 아니라, 신라시대의 충신을 모신 동계사와 고려 말기의 충신을 모신 삼은각도 체크포인트로 선정하였고, 이로써 충신을 기리는 장소이므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인 홍살문을 체크포인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위 장소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추가적으로 세조반정과 계유정난 등의 역사적 배경도 담아 충분한 이해를 도왔고, 세조의 행동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소개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세조의 정치적 행동과 속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성리학 국가인 조선의 근본이념 중 충을 잘 기린 곳이 바로 숙모전으로, 이 책자를 통해 숙모전과 그 역사적 가치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아래 사진은 제작한 책자의 사진이다. 책자의 전면에는 흥미를 끌기 위한 자료로 영화 ‘관상’과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세조의 연관성을 담은 글을 담았다. 또한, 숙모전, 홍살문, 울바위, 자작바위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을 실었다. 책자의 후면에는 사육신과 생육신, 세조의 행동에 대한 평가, 지도와 표지를 실었다.



[그림 4] 책자 전면 사진



[그림 5] 책자 후면 사진

4. 결론 및 제언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숙모전과 계룡산 동학사에 위치한 그 주변의 역사적인 장소들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들에 관련된 역사를 알리고 노력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도 역사와 관계한 장소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활동 시 제한점은 계룡산 동학사 일대에 세조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울바위, 자작바위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고, 위치정보도 파악하기 힘들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추정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연구활동의 제한점이었다. 앞으로 세조반정, 계유정난 등 세조의 역사적인 행위의 뒷이야기가 전해지는 숙모전과 울바위, 자작바위에 대한 이야기와 정확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 숙모전과 울바위, 자작바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역사코스 책자를 수정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에게 성리학 국가인 조선의 정신인 충을 기리는 장소인 숙모전의 역사적 가치와 당시 세조의 죄책감과 정치적 입장을 느낄 수 있는 울바위, 자작바위에 대해 알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소개하는 표지판이 그 위치에 세워지길 희망한다.

5. 활동후기

오은제 :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숙모전, 삼은각, 동계사 등 계룡산 동학사에 우리 역사의 충신들을 모신 역사적 문화재가 여러 곳 있지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안타까워 이번에 만든 리플렛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윤진희 :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산에 직접 올라가보고 그 곳에서 탐사 주제를 잡는다는 것이

생소한 일인데,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았던 것이 새로웠다. 또, 막막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인문자연탐사를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이 또한 재미있는 활동이라 느꼈다.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이었는데, 책자에 직접 찍은 사진을 넣는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만들어진 책자의 취지의 맞게 계룡산에 얹힌 세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더 이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들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신효섭 : 작년에 인문자연탐사를 진행하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번 인문자연탐사 역시 그런 방향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분들과 대화하면서 ‘숙모전’이라는,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알게 되었으며, 사단법인 숙모회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직접 그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더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여 숙모전을 홍보하는 리플렛을 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중요성을 깊이 느꼈다.

엄태준 : 3일간 인문자연탐사를 진행하며 계룡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산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숙모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당시 충신들의 충성심에 감동할 수 있었다. 숙모전과 그 높은 역사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6. 참고문헌

- [1] 김정섭, 2015.10.07, 동학사 ‘숙모전’을 아십니까?,
<http://www.p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7>
- [2] [세조실록] 노산군·금성 대군 등의 자손들을 종친록과 유부록에서 삭제토록 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gal_10311018_004
- [3] 단종충신 追復 논의와 세조의 사육신 인식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413386>